FOLLOWER 4

Be the body of Jesus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Follower!

< 주제성구 >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마태복음 4장 19절)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이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꿈꾸며 창조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하나님의 꿈과 어긋나, 하나님이 꿈꾸셨던 모습과 멀어진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세상을 향한 계획과 사랑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함으로써 하나님에게 나아올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길 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Follower'로 부르며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길 원합니다.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자로 부릅니다. 이는 우리 모두를 향한 예수님의 변함없는 계획입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초대입니다.

우리는 '나를 따라오라'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교회와 세상 속에서 책임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한 걸음씩 나아가야 합니다.
첫 번째 걸음은 부르심에 응답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로 믿고 따름으로 예수님의 초대에 응답해 봅시다.
두 번째 걸음은 예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보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야 할 방식을 배우고 익혀봅시다. 훈련이 몸에 익은 사람이 다음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걸음은 교회와 세상으로 보냄 받는 일입니다. 교회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봅시다. 세상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인지 사람들에게 보여주세요.
'Leader'인 예수님은 우리를 인도합니다. 'Follower'인 우리는 예수님을 따릅니다. 예수님을 잘 따르는 'Follower'는 세상에서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이끄는 또 다른 'Leader'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교회와 세상 속에서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이끄는 또 다른 'Leader'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Follower'와 'Leader'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특징

1) 양육

<Follower>는 예수님의 제자 됨을 목적합니다. 각 사람이 예수님에게 부름 받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 배우고, 교회와 세상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본 교재를 통해서, 교회와 학교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양육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2) 나눔

<Follower>에서 제자 됨을 이루어가는 과정은 나눔입니다. 나눔은 경청과 응답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과별 메시지를 듣고, 이해와 감정, 의지로 응답하며 살도록 질문들을 준비했습니다. 정답을 요구하기보다 열린 질문을 통해 자기 성찰과 제자의 내면화를 이룰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공동체가 이 과정을 함께 나누며 성장해 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질문에 대한 자기 응답만 아니라, 타인과 나의 생각을 나누고, 경청하며, 공동체가 함께 성장해가길 기대합니다.
다양한 자기 표현을 위해 'I(image)카드', 'E(emotion)카드'를 준비하였습니다. 'I 카드'는 이미지를 통해 자신의 생각과 삶을 표현하는 도구입니다. 'E 카드'는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도구입니다.
교재에 제시된 질문을 넘어 다양한 나눔을 위해 'Q(question)카드'를 준비했습니다.
'Q 카드'는 다양한 질문이 담긴 카드입니다.
제자 됨으로의 여정을 공동체가 함께 나누며, 함께 성장해가길 기대합니다.

3) 단순

<Follower>는 구성의 단순화를 추구했습니다. 교회와 학교의 제한된 공간과 시간 속에서 필요한 소그룹 양육과 나눔에 집중하기 위해 각 과를 단순하게 구성했습니다. **『함께 기도(INTRO)-나눔(OPENING)-배움(MEETING)-나눔(FOLLOWING)-함께 기도(OUTRO)』**라는 구성을 통해 기도-나눔-배움이 순환되도록 했습니다. 기도, 나눔, 배움을 통해 집중된 양육의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사용법

<Follower>는 지도자와 청소년이 함께 활용하는 교재입니다. 매주 한과씩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져가는 '제자도'의 과정을 함께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단, 지도자는 미리 교재의 내용을 숙지하도록 합니다.

본 교재의 각과 진행 순서는 **『함께 기도(INTRO)-나눔(OPENING)-배움(MEETING)-나눔(FOLLOWING)-함께 기도(OUTRO)』**입니다.

- INTRO의 기도문을 함께 고백하며 시작합니다.
- OPENING의 가벼운 삶의 나눔을 통해 마음을 엽니다.
- MEETING의 내용을 보며 예수님과의 만남을 이룹니다.
- FOLLOWING에서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나눔을 가집니다.
- OUTRO의 기도문을 함께 고백하며 과의 막을 내립니다.

기도로 들어가, 마음을 열고, 말씀 속에 예수님을 만나고, 마음에 예수님을 담고, 함께 기도로 나오는 과정을 익힘으로 하나님과의 교제의 기본적인 틀을 경험하길 기대합니다.

해당 과와 관련된 기도문입니다. 지도자와 청소년이 함께 읽으며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닫혔던 마음을 여는 시간입니다. 과의 주제와 관련된 질문 혹은 서로를 알아가는 질문이나 게임을 통해서 마음 문을 열고 한걸음 더 나아갑니다. 본 교재를 위해 준비한 Q카드, I카드, E카드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각 과의 주제에 맞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지도자와 청소년이 함께 읽고 이해하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끝에 소개된 '두 문장'을 통해 메시지에서 중요한 부분을 요약해 보시기 바랍니다.

각 과의 메시지를 삶에 적용하는 시간입니다. 본 교재를 위해 준비한 Q카드, I카드, E카드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과를 마무리하며, 하나님께 결단하는 기도입니다. 지도자와 청소년이 함께 읽으며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설 계

1권은 예수님의 제자로의 부르심, 2~3권은 예수님의 제자로 세우심, 4~5권은 교회와 세상으로의 보내심입니다.

1권은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님을 발견하고, 이에 어떻게 응답해야 하는지를 안내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목적과 방법을 살펴보고, 각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겠다는 결단으로 인도하며, 이를 축복하고 격려합니다.

2권은 참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 (말씀과 행동)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안내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법, 삼위일체로 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성품과 사역을 알아갑니다.

3권은 참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말씀과 행동)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알아가도록 안내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방법을 알아갑니다.

2~3권은 예수님의 사람으로 배우고 성장하도록 인도합니다. 참 하나님과 참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배우고 익힙니다.

4권은 예수님을 따르는 공동체로서 교회에 대해 알아가도록 안내합니다. 교회란 어떤 공동체인지, 교회는 어떤 사역을 해야하는지 알아갑니다.

5권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안내합니다. 예수님을 말과 삶으로 전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음을 알아갑니다.

4~5권은 교회와 세상 속에서 어떻게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가를 알려줍니다. 동일한 신앙을 가진 공동체 속에서 어떻게 지내야 하는지, 다른 가치관 속에 살아가고 있는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배우고 익힙니다.

차례

4권 Be the body of Jesus

01 **우리 모두 함께해** | 벧전 2:9 ● 09

02 **우린 한 몸이야** | 골 1:18 ● 13

03 **성령이 함께할 거야** | 고전 6:19, 엡 2:21–22 ● 17

04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 마 16:15–19 ● 21

05 **교회가 나를 따르는 공동체라면?** | 골 2:6–7 ● 25

06 **예배자로 GO, GO!** | 행 2:46–47 ● 29

07 **듣다, 떡다, 자라다** | 행 2:42 ● 33

08 **아무튼, 섬김** | 막 9:33–37 ● 37

09 **이젠 할 수 있어!** | 행 4:31 ● 41

세 가지 카드 만나기

엮의 QR코드의 링크를 통해 준비된 카드(PDF)를 확인하고 출력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나의 지금 감정(emotion)을 다양한 카드 속에서 찾아내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이미지(image)로 나의 느낌을 말 대신 담아낼 수 있습니다.

교재에 나온 질문(question)을 넘어 더욱 다양한 물음을 묻고 나눌 수 있습니다.

1

우리 모두 함께해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 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벧전 2:9)

하나님, 예수님과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해주세요.

Card 1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소개해 주세요.
무엇을 추구하며, 어떤 사람들이 모여 있으며, 어떤 일을 하는지 등을 소개해 주세요.

(ex. 교회, 가정, 학교, 동아리 등)

교회는 어떤 공동체일까요?

많은 사람들 속에 있을 때, 우리는 간혹 혼자 있고 싶어질 때가 있습니다. 다양한 관계 속에서 에너지를 받을 때도 있지만, 내 안의 에너지가 소모될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는 혼자만의 공간, 시간을 찾습니다. 혼자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혼자서만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누군가를 그리워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홀로 살도록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온 세상을 공동체로 살도록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람과 사람, 사람과 피조 세계가 서로를 사랑하며, 서로를 섬기며 살도록 하셨습니다.

사람이 타락한 후, 하나님과 사람, 사람과 사람, 사람과 피조 세계의 관계가 깨졌습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세상 속에서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타락한 세상과 다른,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공동체를 위해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 공동체를 꿈꾸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훗날 이루어질 공동체를 마음에 그리고 계셨습니다. 그 약속대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길 원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공동체입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백성들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공동체를 만들자는 언약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사람이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 사람과 사람이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꿈이 담긴 공동체입니다.

신약에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이 일을 이루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공동체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부름을 받았지만, 그들은 홀로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공동체가 되어 함께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함께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함께 예수님의 명령인 서로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함께 은혜에 감사하며 예배했습니다. 교회는 함께 예수님께 순종하며, 예수님을 의지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통해 시작된 하나님 나라 공동체입니다.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며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꿈꾸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에게 기대하시는 성품들이 있습니다. 믿음, 사랑, 감사와 같은 성품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성품들은 혼자 있으면, 생길 수 없습니다.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성품들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기에 믿을 수 있습니다.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기에 사랑할 수 있습니다. 주고받는 은혜가 있기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 자녀들의 아름다운 성품들이 맺혀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공동체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사람들은 각자 예수님께 부름을 받습니다. 그러나 홀로 머물러 있진 않습니다. 예수님은 각 사람을 교회라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로 인도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라"는 예수님의 부르심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공동체로의 부르심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서로 함께 걷는 공동체, 바로 교회입니다.

- 교회는 예수님을 통해 시작된 □□□ □□ 공동체입니다.
-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성품들은 어디에서 만들어지나요?

(1) 교회를 생각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나요? Card I

(2) 하나님이 꿈꾸시는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일까요? Card I

(3) 내가 속한 공동체가 하나님이 꿈꾸시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하나님, 우리를 하나의 공동체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함께 이루어가도록 인도해 주세요.

2

우린 한 몸이야

골로새서 1장 18절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골 1:18)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예수님과 하나 된 공동체 되게 해주세요.

감정 카드를 활용하여 게임을 진행합니다. Card E

(1) 문제를 낼 한 사람을 정합니다.
(2) 문제를 내는 사람은 말과 손을 사용하지 않고 선생님이 보여주는 감정 카드의 감정을 얼굴 표정으로만 표현합니다. 나머지 팀원들은 답을 맞춥니다.

예수님과 교회는 서로 얼마나 가까운 관계일까요?

삶에서 목표는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현재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나요? 목표가 없을 때는 삶의 모든 부분이 특별한 방향 없이 흘러갑니다. 그러나 분명한 목표가 생기면 건강, 시간, 재정, 인간관계 등 모든 부분들이 하나의 목표를 위해 관리되기 시작합니다.
공동체도 동일합니다. 공동체에 목표가 없을 때는 모든 사람들이 각자 원하는 대로 살아갑니다. 각자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지냅니다. 그러나 공동체에 분명한 목표가 생기면 모든 사람들이 하나가 됩니다. 모두가 하나의 목표를 바라보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며, 한 몸같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한 마음을 품고, 한 곳을 바라보며, 사랑으로 섬기는 사람들을 한 몸 같다고 표현합니다. 예수님과 한 몸처럼 움직이는 공동체,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꿈꾸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을 익혀가며, 하나님 나라의 완성된 모습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한 몸처럼 함께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엔 제자들과 더 긴밀하게 하나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에게 성령을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성령을 받아 예수님과 동일한 마음과 갈망을 품고 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지혜와 능력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사도가 되어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사도들의 전도를 통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 사람들에게도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들도 제자들처럼 성령으로 예수님과 긴밀하게 하나가 되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과 하나 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과 같은 꿈을 품고, 같은 갈망과 마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지혜와 능력을 체험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과 한 몸이 된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예수님과 교회의 하나 된 관계를 머리와 몸의 비유로 설명했습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이며,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교회는 세상 속에 있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과 한 몸 된 교회는 머리 되신 예수님을 따르는 공동체입니다. 우리의 몸에는 눈도 있고, 손도 있고, 발도 있습니다. 모든 기관들이 서로 다르지만, 누구의 지휘에 따라 움직이나요? 머리입니다. 머리를 통해서 모든 기관들이 각자 맡은 일을 합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으로서 예수님의 목표를 향해, 예수님의 인도 속에 움직여야 합니다.

예수님과 한 몸 된 교회가 이 세상에서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함이 없이 이 세상에 계속 계셨더라면, 하셨을 일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몸 된 교회는 그 일을 이어받아 세상 속에서 실천하는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은 교회와 하나 되어 일하십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따라 예배하며, 예수님을 따라 믿는 자들을 교육하며, 믿는 자들과 교제합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따라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며 사랑을 실천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교회 된 우리는 한 몸입니다. 머리이신 예수님의 뜻을 따라 예수님과 하나 되어 움직이는 사람들, 우리가 교회입니다.

- [x] 교회는 예수님과 □□처럼 움직이는 공동체입니다.
- [x] 예수님과 한 몸이 된 교회는 어떠한 일을 하나요?

FOLLOWING

(1)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 슬퍼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기뻐하고 슬퍼하고 있나요?

(2) 오늘 예수님은 몸 된 교회를 통해 어떤 일을 하길 원하실까요? 그 이유도 함께 이야기해 주세요.

(3) 예수님은 교회를 보시며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Card I

OUTRO

하나님, 예수님을 공동체의 머리로 세우시고, 교회인 우리를 예수님의 몸으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뜻을 따라 움직이는 몸 된 공동체 되게 해주세요.

3

성령이 함께할 거야

고린도전서 6장 19절, 에베소서 2장 21-22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고전 6:19)

INTRO

하나님, 교회 속에 함께하시는 성령을 통해 예수님의 일을 함께 이루어 가게 해주세요.

OPENING

공동체원들과 함께 하고 싶은 것들을 생각해 보고, 우리 공동체만의 버킷리스트를 작성해 보세요.

성령은 교회와 함께하시며, 함께 일하실까요?

내가 좋아하는 친구들과 24시간, 어느 곳에서나 함께한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그러나 누구도 그렇게 하지는 못합니다. 우리의 몸은 시공간의 제약을 받기 때문입니다. 지금 학교에서 친구들과 있다면 집에 있는 친구들과는 만날 수 없습니다. 교회에서 만났다면 집에 갈 때는 헤어져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 예수님도 시공간의 제약을 받으셨습니다. 베드로와 대화하면서 동시에 안드레와 대화할 수 없으셨습니다. 요한과 산에 올라갔다면 산 아래 있는 마태와는 함께할 수 없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놀라운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한 후 하나님 아버지에게로 가지만, 성령이 너희 각 사람에게 와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할 것'이라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성령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시공간의 한계를 벗어나 교회의 모든 사람들과 함께하십니다.

교회는 성령이 거하시는 공동체입니다. 성령이 함께하시는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성령이 교회에서 하시는 일이 무엇일까요?

성령은 교회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거룩은 구별을 의미합니다. 성령은 교회를 세상과 구별된 공동체로 만들어 가십니다. 불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세상과 다르게 하나님을 신앙하는 공동체로 만들어 가십니다.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세상과 다르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공동체로 만들어 가십니다. 성령은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 나라 공동체로 교회를 만들어 가십니다.

성령은 교회의 각 사람에게 일을 맡겨 주십니다.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도 주십니다.

누군가는 전도하는 일을 잘합니다. 누군가는 가르치는 일을 잘합니다. 누군가는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일을 잘합니다. 누군가는 섬기는 일을 잘합니다. 성령은 각 사람에게 각기 다른 일과 능력을 주시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는 공동체를 만들어 가십니다.
사람이 걸어갈 때의 몸을 생각해 봅시다. 팔과 다리의 맡은 일이 다릅니다. 흔드는 방향, 각도가 다릅니다. 목과 어깨, 허리가 맡은 일이 다릅니다. 중심을 잡아야 하는 부분이 있으면, 부드럽게 움직여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성령은 각자가 맡은 일을 잘 감당하도록, 더불어 예수님의 뜻을 따라 행하도록 인도하십니다.

교회는 성령이 거하시는 공동체입니다. 성령은 예수님을 닮은, 세상과 구별된 자로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믿음과 사랑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더불어 각 사람들에게 서로 다른 일을 맡겨주어 예수님의 일을 함께 이루어가게 하십니다. 교회, 성령의 끊임없는 일하심이 있는 공동체입니다.

- ✓ 교회는 누가 거하는 공동체인가요?
- ✓ 성령은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시나요?

Card E

Card 1

(1) 성령이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하신다고 할 때, 어떤 마음이 드나요? 성령과 함께하는 삶은 어떤 이미지인가요?

(2) 성령이 거하시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 우리 공동체만의 3계명을 만들어 봅시다.

(3) 성령이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은 무엇일까요? 서로의 역할을 나눠봅시다.

하나님,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과 함께 걷고, 일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4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마태복음 16장 15-19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마 16:16)

하나님, 같은 신앙을 고백하는 교회 되게 해주세요.

선생님의 질문을 듣고 여러분의 생각을 말해 봅시다. 답변이 모두 일치하는 질문이 있을까요?

① 생일에 무슨 선물을 받고 싶은가요?
② 어떤 날씨를 가장 좋아하나요?
③ 내게 친구란 어떤 존재인가요?

교회가 가진 동일한 신앙고백은 무엇일까요?

비슷하지만 다른 것이 있습니다. 명품 가방과 가품 가방을 얼핏 보면 비슷합니다. 그러나 잘 들여다보면 원단, 가죽, 실이 다 다릅니다. 사람도 닮은꼴이 있습니다. 얼핏 보면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눈, 코, 입이 모두 다름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교회처럼 보이지만 교회가 아닌 공동체도 있습니다. 이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바로 신앙고백입니다. 건물도 비슷하고, 활동도 비슷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내용이 다르다면, 교회처럼 보여도 교회가 아닙니다.

믿음이란 혼자 사용할 수 없는 단어입니다. 믿음의 대상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은 바른 대상을 향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물어보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질문에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신앙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교회는 시간과 장소를 뛰어넘어 베드로와 동일한 신앙을 고백하는 공동체입니다. 베드로와 동일한 신앙의 방향을 가진 공동체입니다. 베드로가 고백했던 신앙이 전해져서 만들어진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공동체입니다(마 16:16).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은 예수님이 완전한 사람이자 완전한 하나님으로 오신 분이라는 신앙고백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고백은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한 신앙고백입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입니다. 구약에선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일꾼들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선지자, 제사장, 왕은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셨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이어주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는 제물로 자신을 십자가에 드리셨습니다. 왕은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셔서 세상과 교회를 공의와 사랑으로 다스리십니다.

교회가 모이는 장소, 겉으로 드러난 모습, 속한 사람들은 각각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향한 신앙고백이 달라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예수님이라는 한 방향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따라 함께 걸어가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동일한 예수님을 전하며, 동일한 예수님의 꿈을 바라보며, 동일하게 예수님이 맡겨주신 일을 이루어가는 공동체입니다. 교회, 동일한 믿음의 방향을 가진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 예수님의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질문에 베드로는 무엇이라 대답했나요?
- 교회는 예수님을 향한 □□□□이 같은 공동체입니다.

(1) 우리 모임 중에서 나와 가장 비슷한 사람과 다른 사람을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아래에 있는 2번 질문에 무엇이라 대답하는지 잘 들어보세요.

(2) 당신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요? 이미지 카드를 활용하여 나의 신앙을 고백해 봅시다.

(3) 우리의 모습은 달라도 신앙고백은 하나입니다. 모두 손을 잡고 베드로의 대답(마 16:16)을 함께 외쳐봅시다.

하나님, 우리를 동일한 신앙고백 속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의 신앙으로 견고히 서 있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5

교회가 나를 따르는 공동체라면?

골로새서 2장 6-7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골 2:6-7)

하나님, 우리 교회가 예수님만 따르는 공동체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의 교회는 참 좋은 교회입니다. 그러나 이것까지 있으면 더 좋겠다 하는 것들이 있을까요? 하나씩만 생각해 봅시다.

교회가 진정으로 따라야 할 분은 누구일까요?

사람들의 모습을 관찰하는 TV 예능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집이나 자동차 안에 여러 대의 카메라를 설치해놓고, 한 사람의 일상을 살펴보는 프로그램입니다. 평소에 관심 있던 사람이 등장하면 더 유심히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의 삶이 궁금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내가 역사적 인물들을 포함해서 누군가를 관찰 예능 프로그램에 섭외할 수 있다면, 누구를 선택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면, 최우선 섭외 대상은 예수님일 것입니다. 예수님의 일상을 잘 살펴본다면,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따르는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선 예수님의 발자취를 살펴봐야 합니다. 예수님을 뒤따라가는 심정으로 예수님의 행동과 말씀을 기록한 복음서를 읽어봅시다. 좋아하는 누군가의 모든 것을 알고 싶어 하는 사람처럼 예수님의 시선과 발걸음을 치열하게 뒤좇아 가 봅시다.
예수님의 시선은 어디를 향했을까요? 예수님의 발걸음은 어디를 향했을까요? 하나는 하나님, 다른 하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로 향하셨고, 자신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향하셨습니다. 하나님, 제자들, 믿지 않는 사람들, 이것이 예수님의 발걸음이 향했던 세 곳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은 성전과 회당에서 이루어지는 공적인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가지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교회가 추구해야 할 하나의 기둥, 그것은 곧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란,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따라 사람들을 향해 나아가는 공동체입니다.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즉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가셨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을 가르치시고, 그들과 교제를 나누셨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는 교육과 양육, 교제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지 않는 세상의 사람들에게도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시고, 그들의 어려움들을 해결해 주며, 사람들을 자신의 공동체로 초대하셨습니다. 그곳에선 전도와 봉사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교회가 추구해야 할 또 하나의 기둥, 그것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란, 예수님처럼 사람들을 향해 나아가는 삶입니다.

예수님의 시선이 향하던 곳, 예수님의 발걸음이 향하던 곳은 바로 하나님과 사람입니다. 예수님에게서 하나님 사랑, 서로 사랑이라는 하나님의 계명이 온전히 이루어졌습니다. 교회, 예수님과 같은 곳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공동체입니다.

- 교회는 누구의 발자취를 따라가나요?
- 예수님의 시선과 발걸음이 향한 두 곳은 어디인가요?

FOLLOWING

(1)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이미지로 표현해 보세요. Card I
그 이유도 함께 이야기해 주세요.

(2) 하나님께 나아갈 때 나의 마음은 어떠한가요? Card E Card I
예배는 나에게 어떠한 시간인가요?

(3)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다가가야 할 것 같은 사람이 나의 주변에 있나요? 나의 어떠한 섬김이 그 사람에게 필요할까요?

OUTRO

하나님,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께 나아가고, 서로를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6

예배자로 GO, GO!

사도행전 2장 46-47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 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행 2:46-47)

INTRO

하나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과 함께하게 해주세요.

OPENING

여러분이 만약 결혼한다면, 상대방에게 하고 싶거나 받고 싶은 프로포즈가 있나요? 서로의 아이디어를 나누어봅시다.

우리는 하나님께 어떠한 마음으로 나아가고 있나요?

세상에는 다양한 만남이 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마주하는 부모와의 만남, 자라면서 마주하는 친구들과의 만남, 성장하며 마주하는 스승과의 만남이 있습니다. 어떤 만남은 한 번으로 끝나기도 하고, 어떤 만남은 평생에 걸쳐 이어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만남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를 놓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이 놓치지 않으셨던 그 만남을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가 예배입니다.

예수님의 시선은 삶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그 뜻을 실현하려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발걸음은 구별된 시간에 구별된 장소로 향했습니다. 공적인 예배와 사적인 기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시선을 온전히 하나님을 향해 두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은 순종하는 일상의 삶으로 이어졌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올곧은 사랑의 마음, 순종의 실천을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은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에게 불순종하는 역사를 써내려가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한 변함없는 사랑으로 순종하는 삶을 온전히 보여주셨습니다. 그 중심에 예배가 있었습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표현되었습니다. 예배는 순종하는 일상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직접적인 표현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사랑하면 만나고 싶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행동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교회는 예배하는 공동체입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을 따라 예배하였습니다. 성만찬을 나누며 예수님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자 했습니다. 성경을 읽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자신의 삶을 하나님에게 조율했습니다. 하나님에게 찬양을 드리며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렸습니다. 하나님에게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의 돌봄을 구했습니다. 예배는 교회 속에서 하나님 사랑이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이루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사람들을 예배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과 사랑으로 시선을 마주할 사람들을 기다리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 속에는 예배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교회, 예배의 공동체입니다.

- ✓ 예배는 누구와 만나는 시간인가요?
- ✓ 예배는 누구를 향한 사랑을 표현하는 시간인가요?

FOLLOWING

(1)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을 노래 제목과 이미지로 표현해 봅시다. Card I

(2) 하나님은 예배드리는 나의 모습을 바라보시며, 어떠한 마음이실까요? Card E

(3) 예배자로서 나는 어떠한 준비를 하나요?

OUTRO

하나님,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사랑함으로 나아가는 온전한 예배자가 되게 해주세요.

7

듣다, 먹다, 자라다

사도행전 2장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행 2:42)

INTRO

하나님, 우리가 교회 안에서 무럭무럭 자라나게 해주세요.

OPENING

우리가 신체검사를 할 때 키, 몸무게를 측정하듯이 신앙 검사표를 작성해 봅시다. 내 신앙의 습관을 고려하여 말씀의 키는 몇 센티, 사랑의 발걸음은 몇 걸음, 믿음의 무게는 몇 킬로그램이 되었는지 상상해보고 나눠 봅시다. 그리고 성장 목표도 정해 봅시다.

신앙 검사표	◯ 말씀의 키 _____ Cm ◯ 사랑의 발걸음 _____ 걸음 ◯ 믿음의 무게 _____ Kg

우리는 교회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장해갈까요?

어릴 때 사진을 본 적이 있나요? 아주 작은 아기가 어떻게 현재 모습과 같이 컸는지 신기하게 느껴집니다. 한 마디도 못하던 아기가 자기의 생각을 조리 있게 말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혼자 힘으로 몸을 뒤집지도 못하는 아이가 달리고 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한 명의 아기가 청소년으로 클 수 있었던 이유는 성장을 위한 하루, 하루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의 성장 과정을 매 순간 알아차리기는 어렵습니다. 매일 다양한 사람들로부터 배우고, 끼니마다 밥을 먹고, 저녁이 되면 잠을 자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나니 어느새 훌쩍 성장해버렸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함께 교제하는 하루, 하루를 쌓아가는 공동체입니다. 묵묵히 성장을 위한 날들을 쌓아가는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 되길 바라셨습니다. 예수님의 일들을 함께 이루어가는 사람들이 되길 기대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은 제자들이 성장하길 바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성장을 위해 두 가지를 하셨습니다. 하나는 가르침이며, 다른 하나는 교제였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교제를 통해 삶으로도 가르치셨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의 자녀들의 성장을 위해 가르치고 서로 교제했습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들과 교제하며 삶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보여주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는 터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히는 곳입니다. 세상 속에서 만들어진 세계관, 가치관을 허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운 세계관, 가치관을 세우는 곳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과 교제하며, 그들의 말과 행동, 태도를 통해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마주하는 곳입니다. 세상 속에서 보고 배운 삶의 방식들을 허물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의 방식을 세우는 곳입니다.
교회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먹고, 음식을 나누며 교제하다 보면, 어느새 예수님을 닮아있는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매일매일 정확하게 측정하긴 어렵지만 시간이 흘러 서로를 바라보면, 예수님을 닮은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변화의 터전입니다. 예수님과 어긋났던 옛사람의 생각과 삶의 방식을 벗어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새사람의 생각과 삶의 방식을 배우고 익히는 자리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한 사람들은 교회를 통해 예수님의 사람으로 성장합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준비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장성한 자녀로 성장하고, 또 다른 하나님의 자녀들의 성장을 도우며 함께 이루어가는 공동체, 바로 교회입니다.

- [ ] 예수님이 제자들의 성장을 위해 하신 두 가지 일은 무엇이었나요?
- [ ] 교회의 교육과 교제를 통해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변화되어가나요?

(1) 교회를 통해 나는 어떠한 사람이 되길 기대하나요?
그 이유도 함께 이야기해 주세요.

(2) 3년 전과 비교했을 때, 나의 신앙 중 어떠한 부분이 성장했나요?
(ex. 신앙 지식, 사랑, 순종, 기도 등)
어떻게 성장할 수 있었을까요?

(3) 예수님을 따라 성장하겠다는 다짐을 담아 '성장'이라는 두 글자로 이행시를 만들어 봅시다.

성

장

하나님, 우리를 성장의 터전인 교회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성장의 터전인 교회에서 성장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8

아무튼, 섬김

마가복음 9장 33-37절

예수께서 앉으사 열두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 사람의 끝이 되며 뭇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막 9:35)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섬기는 공동체가 되게 해주세요.

(1) 정답을 맞추는 사람을 제외하고 나머지 사람들에게 제시어를 공유합니다.(ex. 운동 종목, 속담, 동물, 직업 등)
(2) 제시어를 본 사람들이 제한 시간 동안 제시어의 힌트를 그림으로 그리는데 앞사람이 그린 그림에 부족한 부분을 뒷사람이 이어 그려서 함께 하나의 그림만 완성합니다.
(3) 한 사람당 주어지는 제한 시간은 3~4초 내외로 짧게 합니다.
(4) 마지막 사람은 최종 완성된 그림만 보고 제시어를 맞춰야 합니다.
(* 인원에 따라 한 반끼리 하거나, 두 팀으로 나눠 하거나, 다른 반과 대결하는 등 방식을 다양하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세상에는 사람을 대하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섬김형 인간, 지배형 인간입니다. 섬김형 인간은 내게 있는 것으로 타인을 섬겨, 함께 성장하기를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지배형 인간은 내게 있는 것으로 타인보다 우위를 점해, 나 홀로 높임을 받길 원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어떠한 종류의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떠한 종류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나요?

나와 타인을 비교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높아지려는 마음을 품고 있으면, 괴로움이 시작됩니다. 내가 타인보다 더 나은 부분이 있으면, 높은 마음을 품고 상대를 무시하고 억압합니다. 내가 타인보다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시기와 질투로 타인을 깎아내립니다. 혹은 자기 스스로에 대해 한탄하며 괴로워합니다. 이렇듯 높아지려는 마음은 서로를 아프게 합니다.

교회에도 다양한 사람들이 있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과 다른 삶의 태도로 사람을 대하길 원하십니다. 높아지려는 마음 대신 섬기려는 마음을 갖길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부족함을 아셨지만, 배제하거나 무시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의 부족함을 자신의 넉넉함으로 채우고자 하셨습니다. 예수님에겐 섬기려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죄로 인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죄 없으신 예수님은 사람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섬김을 통해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따라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면서 서로를 섬기는 공동체입니다. 내가 타인보다 더 나은 부분이 있다면, 그것으로 타인을 섬기는 공동체입니다. 내가 타인보다 부족한 부분이 있을 때, 타인의 장점을 칭찬하며 섬김의 기회를 열어주는 공동체입니다. 섬김을 통해 함께 기뻐하게 되고, 서로의 연약함이 새로워집니다. 섬김은 내가 서 있는 곳을 천국으로 변화시켜가는 길입니다. 섬김은 오늘 여기에서 천국을 맛보게 해주는 길입니다.

초대교회는 섬김의 공동체였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서로의 물건을 함께 사용할 뿐 아니라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기도 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 받은 은사를 자랑하는 데 쓰기보다 타인을 사랑으로 섬기는 데 사용하라고 권했습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섬길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누구나 섬김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나의 넉넉함으로 공동체의 부족함을 채워갈 때, 교회는 하나님 나라가 됩니다. 섬김이 있는 곳에 하나님 나라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 타인과 다름을 발견할 때, 우리는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 교회는 어떠한 공동체인가요?

(1) 섬김과 나눔을 실천했던 초대교회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2) 나의 부족함은 무엇인가요?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다른 사람의 섬김을 경험해 본 적이 있나요? 어떠한 섬김을 기대하나요?

(3) 나는 어떤 은사를 갖고 있나요? 내게 있는 것으로 다른 사람의 어떠한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을까요?

하나님, 우리를 다양한 은혜로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도 내게 있는 것으로 공동체를 섬기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9

이젠 할 수 있어!

사도행전 4장 31절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행 4:31)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히어로 영화나 애니메이션을 본 적 있나요? 히어로가 갖고 있는 능력 중 몇 가지를 얻을 수 있다면, 어떤 능력을 얻고 싶은지 이야기해 봅시다. 주요 특징들을 적거나 그려봅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은 무엇일까요?

내가 반드시 이루고 싶은 일이 있을 때, 사람들은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나는 할 수 있다"고 믿고, 선언하고, 노력하라고 합니다.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면 뭐든지 가능해질까요?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나는 할 수 있다!"라고 외치며 시작했던 일들은 다 성공했나요?

베드로는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지녔던 사람이었습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선언했고, 다른 사람은 다 예수님을 부인해도 자신은 절대 그러지 않을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향하실 때, 베드로는 뒷걸음질 쳤습니다. 자신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사람들에게 말할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처럼 붙잡히게 될까봐 두려워했습니다. 결국에는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라며 예수님을 모른 척 했습니다. 베드로만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다른 제자들도 십자가로 향하시던 예수님과 끝까지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다 실패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실패의 기억으로 괴로워하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한 가지를 부탁하셨습니다. 성령을 기다리는 일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약속하셨던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성령에 의해 새로운 언어로 열렬히 기도하게 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때, 이 사건에 놀라움을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제자들을 보며 술에 취한 것 아니냐며 조롱하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예전의 제자들이라면 예수님을 부인하고 숨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함께하는 제자들은 이전과 달랐습니다. 베드로와 열한 사도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주셨다며 담대하게 외쳤습니다.

사도들이 예수님을 전할 때 이를 못마땅하게 여기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을 잡아서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예전의 제자들이라면 두려워 숨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함께하는 교회는 이러한 상황들을 하나님께 아뢰며 기도했습니다. 모든 기도를 마친 후, 그들은 오히려 더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성령이 그들의 마음을 담대하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교회 가운데 일하시자, 사람들은 모든 물건을 함께 사용하며 자기의 재물을 자기 것으로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밭과 집을 팔아서 사도들에게 내어놓고 그것으로 부족한 사람들을 돕고 섬기도록 하였습니다. 서로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서로 낮은 자리에서 섬기려고 하였습니다.
성령은 교회 속에 함께하시면서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교회를 섬기는 일을 하도록 능력을 주셨습니다.

스스로의 결심으로만은 쉽지 않았던 일들이 자연스럽게 시작되었습니다. 제자들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지만, 우리가 하고 있는 것 같지 않아. 누군가 우리 안에서 함께해 주시고 있어!'
성령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 나라를 담대하게 전하고, 사람들을 섬길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의 능력 덕분이었습니다.
교회는 능력의 공동체입니다. 성령이 주시는 능력을 의지하여 "이젠 할 수 있다"고 담대히 외치는 공동체입니다.

- 실패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무엇을 기다리라고 했나요?
- 성령이 교회 속에서 일하실 때 사람들은 어떻게 변화되었나요?

(1) 성령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어떠한 모습인가요?

(2) 오늘 나에게 성령은 어떠한 능력을 주셨나요? 내가 앞으로 기대하는 능력은 무엇인가요?

(3) 오늘날 교회에 가장 필요한 능력은 무엇이 있을까요? 함께 손을 잡고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도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해주세요.

MEMO

MEMO

MEMO

MEMO

MEMO

MEMO

MEMO

MEMO

MEMO

MEMO

FOLLOWER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발행일 2025. 7.
발행인 김정석
편집인 김두범
기획 조성환 이상숙 신혜경 이상지
집필 정승환 오선주 이반석 이태진
감수 박찬웅 양성진
그림 김유림
교정교열 조윤정
발행처 기독교대한감리회본부 교육국
11520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호국로 73번길 135-52
전화 02-399-4371, 4367
디자인 및 제작 디자인통

〈비매품〉